

스포츠웨어도 탄력성을 높여라!

새한, 다이어트용 개발 여성소비자 확보 ... 탄성 회복력 2배 높아

기능성 라이크라 원사가 함유된 다이어트용 스포츠웨어가 홈쇼핑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새한(대표 박광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다이어트용 기능성 원단 <나노파워(Nano Power)>가 2003년 1월 개발된 이래 주문이 꾸준히 늘고 있어 2004년에는 5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노파워>는 기능성 Two-way(양 방향) 스트레치 직물로서 뛰어난 보정 효과를 보이며, 동일한 움직임에도 최대의 운동량을 낼 수 있도록 설계돼 다이어트용 스포츠웨어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수영복과 같이 손쉽게 손세탁이 가능해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스트레치 원단에는 신축성 원사가 15-20% 포함되는 반면, <나노파워>는 30% 가까운 신축성 원사(라이크라)를 함유해 기존 스트레치 직물보다 2배 가까운 탄성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나노 파워>는 현재 이미용 전문기업인 크리원월드가 <에버슬림(EVER SLIM)>이라는 다이어트용 스포츠웨어로 출시해 LG홈쇼핑에 전량 독점 공급하고 있다.

새한 관계자는 “패션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어 앞으로 기능성 패션시장을 적극 공략해 기능성 원단의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16>